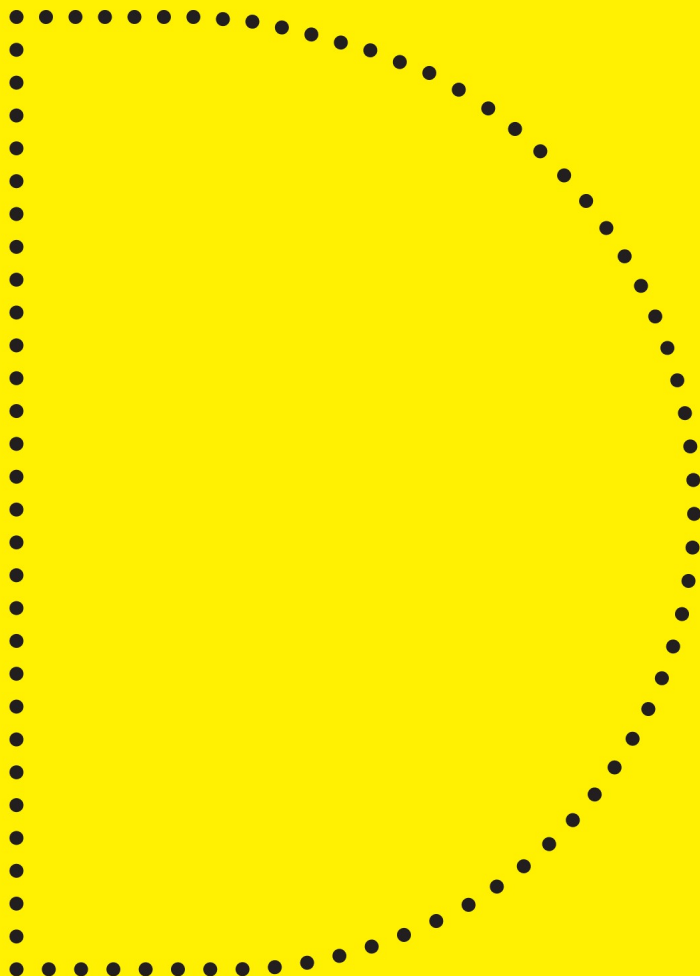




Vol.1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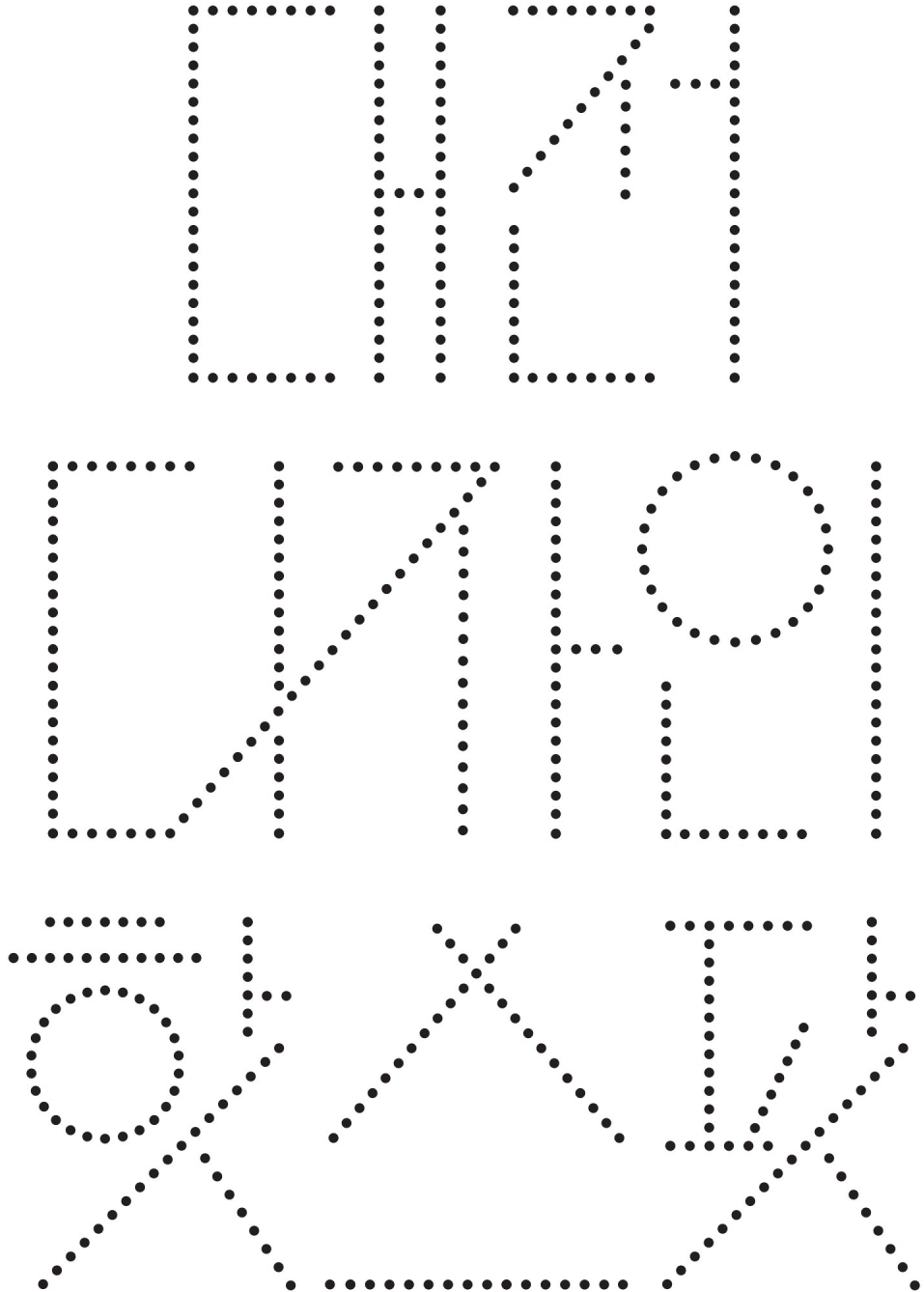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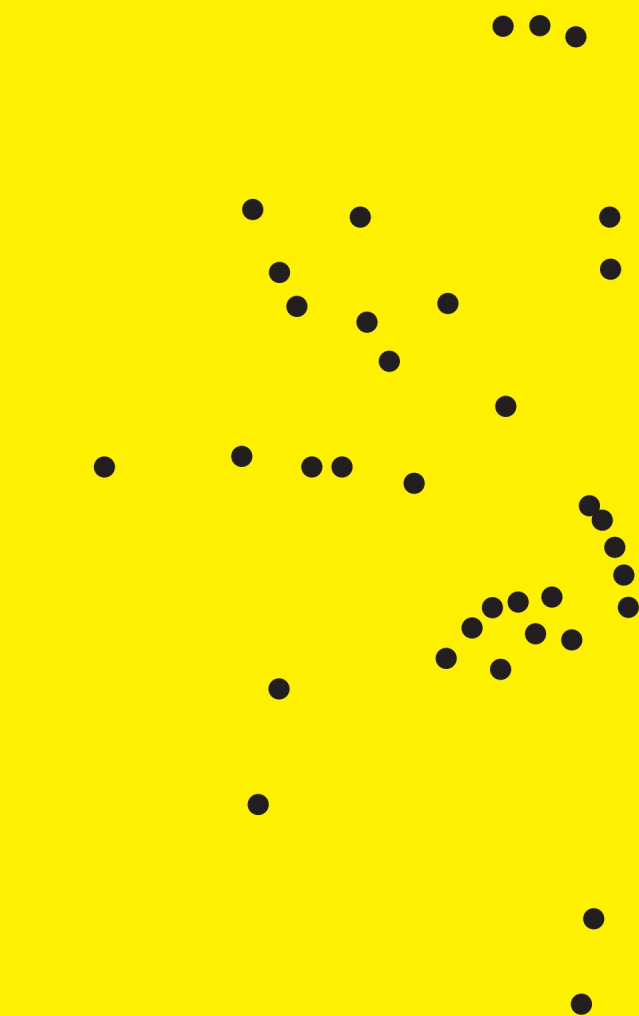
대전디자인핫스팟
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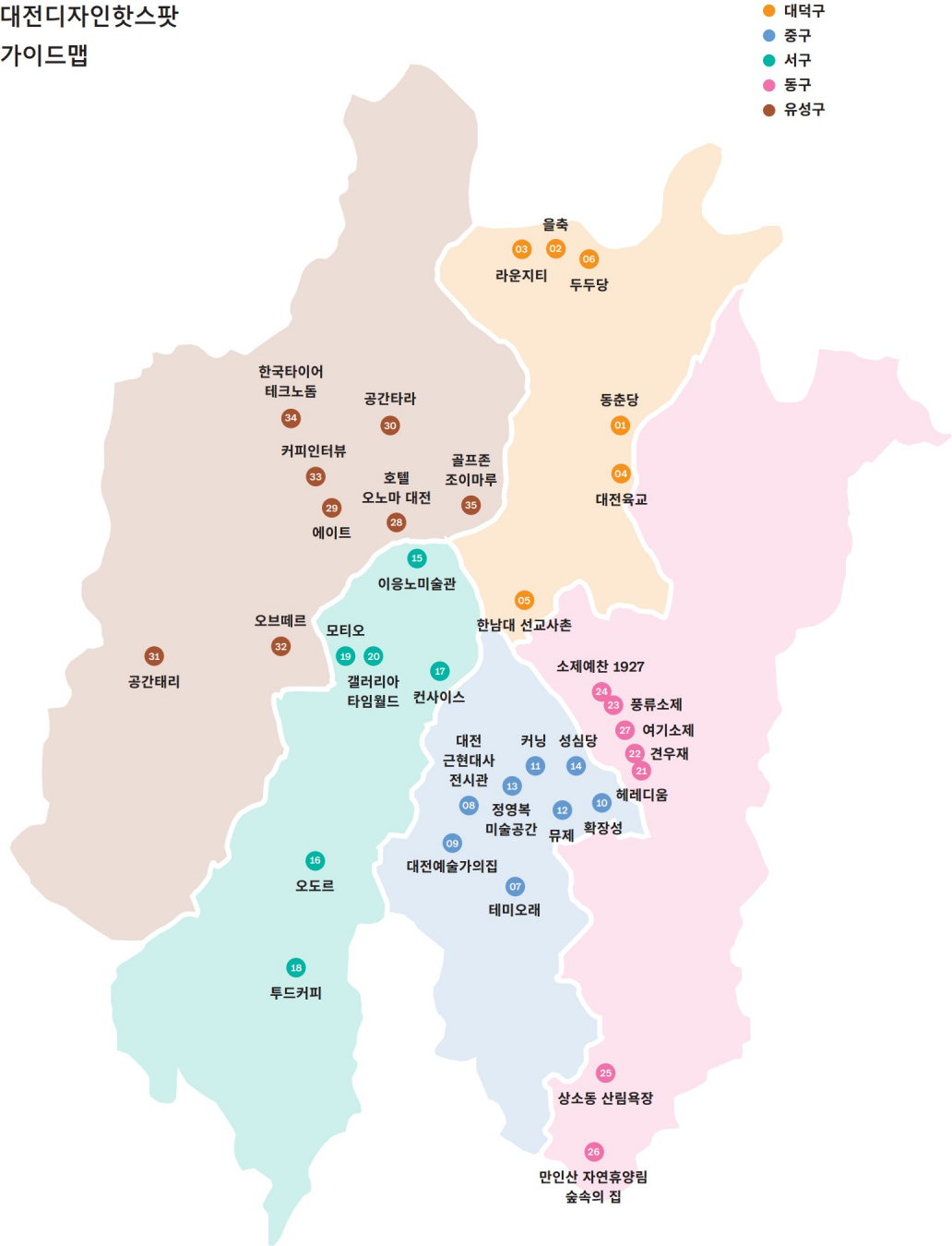
01	등춘당	#공원 #역사 #건축	4p
02	을축	#카페	6p
03	라운지티	#카페	8p
04	대전육교	#역사 #건축	10p
05	한남대 선교사촌	#역사 #건축	12p
06	두두당	#카페	14p
07	테미오레	#문화 #예술 #역사	16p
08	대전근현대사전시관	#역사 #문화	18p
09	대전예술가의집	#문화 #예술	20p
10	확장성	#카페 #문화 #예술	22p
11	커닝	#카페	24p
12	뮤제	#카페	26p
13	정영복 미술공간	#문화 #예술	28p
14	성심당	#빵집 #역사	30p
15	이용노미술관	#문화 #예술 #건축	32p
16	오도르	#카페	34p
17	컨사이스	#카페	36p
18	투드커피	#카페	38p
19	모티오	#LP바	40p
20	갤러리아 타임월드	#건축	42p
21	헤레디움	#역사 #문화 #예술 #건축	44p
22	견우재	#카페 #반려견동반	46p
23	풍류소제	#카페	48p
24	소제예찬1927	#카페 #역사	50p
25	상소동 산림욕장	#자연 #휴식	52p
26	만인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자연 #휴식 #건축	54p
27	여기소제	#편집숍	56p
28	호텔 오노마 대전	#호텔 #건축	58p
29	에이트	#카페	60p
30	공간타라	#카페 #문화 #예술 #편집숍	62p
31	공간태리	#카페	64p
32	오브페르	#카페	66p
33	커피인터뷰	#카페	68p
34	한국타이어 테크노돔	#건축	70p
35	골프존 조이마루	#스포츠 #건축	72p



본 책자는 2024년 대전디자인진흥원의 사업으로 진행된 <2024 대전디자인핫스팟>
사업의 연계 출판물로 기획·제작된 책자입니다.



대전디자인핫스팟
가이드맵



대전디자인핫스팟:
도시와 디자인, 그 연결의 기록

대전은 과학과 기술의 중심지이자, 지리적 중심지로서 다양한 지역적 특성이 융합되어 사람과 문화를 아우르는 포용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이러한 대전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 스토리북을 통해 대전 시민과 방문객들이 도시 곳곳에 숨겨진 디자인적 가치와 매력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대전시와 대전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한 ‘대전디자인핫스팟’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전디자인핫스팟’ 사업은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대전의 다섯 개 구(區)를 대표할 만한 35개의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공간의 나열이 아닌, 각 장소에 담긴 역사적 배경, 문화적 의미, 그리고 디자인적 가치를 깊이 탐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추천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대전이라는 도시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장소들을 최종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매거진 ‘대전디자인핫스팟’은 이 사업의 결과물을 집대성한 아카이브입니다. 여기에는 대전이 가진 디자인적 매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각 장소의 이야기와 사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도시적 가치를 함께 담았습니다.

대전의 디자인 스팟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도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중요한 연결점이며, 지역 주민들의 삶과 상상력이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이곳들은 대전이라는 도시가 가진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스팟을 통해 우리는 도시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리고 디자인이 지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대전의 디자인스팟을
아카이브해야 할까요?

기록하지 않은 도시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디자인 스팟을 아카이브하는 것은 대전이라는 도시가 가진 정체성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보존하는 작업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대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대전디자인핫스팟에 담긴 공간적, 시각적, 그리고 문화적 기록은 앞으로의 대전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대전디자인핫스팟’은 독자들에게 대전이라는 도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미 익숙한 장소도 다르게 보일 수 있고, 처음 알게 된 장소는 대전에 대한 흥미와 애정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이 매거진이 단순히 대전의 장소들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와 디자인, 그리고 사람들을 잇는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책장을 넘기며, 대전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하고 디자인적 가능성을 탐구해 보세요.



01

조선 효종 때 대사헌,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지낸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의 별당으로, 늘 봄과 같다는 뜻의 자신의 호를 따서 이름을 붙였다. 1963년 대한민국 보물로 지정되었다.

조선 시대 별당 건축의 한 유형으로, 앞면 3칸·옆면 2칸의 총 6칸 규모 별당이다. 오른쪽 4칸은 대청마루, 왼쪽 2칸은 온돌방으로 되어 있으며, 대청의 앞면·옆면·뒷면에는 쪽마루를 내어 들어열개문을 달아 문을 모두 들어 열 경우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

동춘당은 굴뚝을 따로 세워 달지 않고, 왼쪽 온돌방 아래 초석과 같은 높이로 연기 구멍을 뚫어 놓았다. 이는 따뜻한 온돌방에서 편히 쉬는 것을 부덕하게 여기던 당시 유학자의 은둔적 사고를 굴뚝을 보이지 않게 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동춘당은 지난 2009년 송준길의 고택, 둘째 손자 송병하가 분가하여 거주하던 송용억 가옥(宋容億家屋)과 함께 명품 공원화 사업을 통해 동춘당공원으로 재탄생하였으며, 시민들에게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을 전하고 있다.

늘 봄과 같으리, 동춘당

01



02

신탄진 먹자골목에 위치한 을축은 주택을 개조한 한옥 감성을 지닌 베이커리 카페다. 조금은 허름해 보이는 외관과 달리, 문 안쪽에선 감성 넘치는 한옥 분위기를 만나볼 수 있다. 한옥 인테리어와 함께 곳곳에 배치된 예스러운 장식장과 테이블, TV 등이 아늑함을 더해준다. 동시에 2층과 루프탑에선 정반대의 세련된 현대적 분위기를 만나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을축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마당 통로에 심어진 소나무 포토 스팟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이다.

을축(乙丑)의 이름은 본래 개조되기 전 주택이 을축년이었던 1925년에 지어진 것에서 유래했다. 약 100년 전 파란 소의 해에 지어진 주택이 시민들의 문화·휴식 공간으로서 그 의미를 이어가며, 다시금 새로운 을축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새롭게 태어난 파란 소의 주택, 을축

02



03

최근 SNS에서 대전의 포토 스팟으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라운지티다. 라운지티는 대덕구 석봉동에 위치한 카페로, 도심 속 루프탑과 테라스에서 야경과 밤하늘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4~5층에 위치해 있으며, 모던한 내부 공간 디자인으로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 다양한 좌석 유형이 마련되어 있어 좌석별로 새로운 느낌을 받기도 한다.

라운지티 공간 디자인의 가장 핵심은 4층 야외에 마련된 ‘수(水) 공간’이다. 한옥 인테리어를 배경으로 찍는 사진에서는 감성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며, 낮과 밤 각각의 매력이 있어 방문객들의 사진 촬영이 연신 이어진다.

도심 속 지친 일상을 잠시 내려두고, 라운지티에서 ‘물멍’을 하며 여유를 가져보는 것은 어떠한가?

도심 속 감성을 수놓는 수(水)공간, 라운지티

DOOR TO
03



04

대전육교는 1969년 10월에 건설된 국내 최초의 아치형 교량이다. 경부고속도로의 주요 시설물 중 하나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덕동부터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증악리 구간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건설 당시 국내에서 가장 높았던 아치형 교량으로, 길이 201m, 폭 21.4m, 높이 35m 규모를 자랑한다.

대전육교의 건설 과정은 까다로운 기술적 도전이었다. 아치형의 특성상 구조적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 양쪽 끝에서부터 중앙으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했고, 기술과 자본의 부족으로 인해 1969년 공사 과정에서 주요 붕괴 사고가 두 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국내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마침내 완공될 수 있었던 교량이다.

1970년 7월,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이 완공되면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으나, 1999년 고속도로 노선 변경으로 인해 교량 사용이 중단되었다. 이후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20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 현재는 대전육교 아래에 길치근린공원이 조성되었으며, 대전육교에도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해 근사한 야경과 구조미를 제공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를 이어주다, 대전육교

DESIGN 04



05

한남대학교 캠퍼스 내에 위치한 선교사촌은 1955년부터 1958년 사이에 지어진 선교사 사택들이 모여 있는 대전의 문화숲이다. 1950년대의 한옥 4개 동과 양옥 3개 동이 자리 잡고 있으며, 50년생 수목과 52종의 희귀 조류가 어우러져 도심 속의 자연과 역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이다. 이곳은 대전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유서 깊은 장소로, 1990년대 초 선교사들이 떠난 후 일부는 한남대학교의 설립자인 윌리엄 린튼을 기념하는 인돈학술원으로 변모하여 유물을 보관·전시하고 있다.

선교사촌의 건물들은 서양식과 한국적 건축 요소가 융합된 독특한 양식으로, 붉은 벽돌에 한식 기와를 얹은 팔작지붕을 특색으로 한다. 특히 지붕은 변형된 왕대공을 적용하고 서까래를 노출시켜 전통적 기법을 강조하였으며, 창틀과 반원형 적벽돌 바닥 등은 건축물의 매력을 더한다. 내부 구성은 서구식 평면을 띠며, 각 건물의 배치는 응접실과 서재를 전면에, 침실을 후면에 두는 형식으로 전형적인 서양 주택의 구조를 따른다.

이곳은 또한 영화 ‘그 해 여름’, ‘덕혜옹주’, ‘서울의 봄’의 촬영지로 알려져 있어, 방문객들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영화 속 장면을 떠올리게 된다.

영화 속 한 장면을 거닐다, 한남대 선교사촌

DEPO

05



06

대청호 인근에 위치한 여러 카페 중 단아한 한옥의 모습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는 이곳은 두두당(豆豆堂)이다. 외관은 한옥 콘셉트를 하고 있지만, 내부 인테리어는 색다름을 준다. 특히 층별로 각각 다른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가 특징이다.

심플한 모던 인테리어의 1층은 야외 가든과 이어지며, 인스타그램 감성이 제대로 충전된다. 2층은 창가에 좌식 테이블이 마련된 실내와 운치를 느낄 수 있는 테라스가 함께 구성되어 있어, 분위기에 맞는 대화를 하기 좋다. 3층은 높이 솟은 지붕 안쪽의 ‘보’와 ‘도리’가 보이는 인테리어로 전통적이며 우아한 느낌을 더했다.

따사로운 햇볕 아래 흐르는 금강을 바라보며, 두두당의 다양한 커피 메뉴와 수제 디저트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

따사로운 햇볕, 흐르는 금강, 두두당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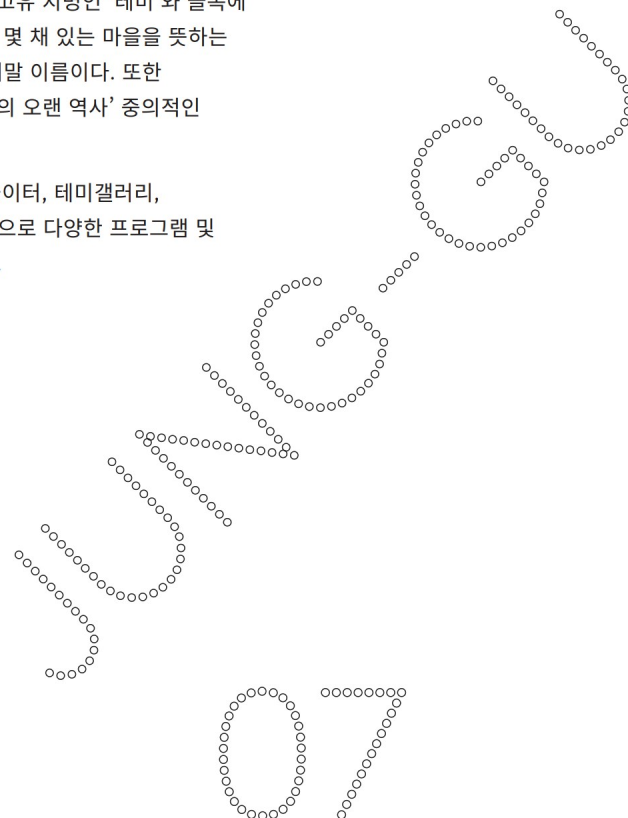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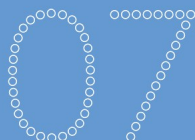
문화가 꽃피는 관사촌으로 오라, 테미오래

1932년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옮기며 같은 시기에 ‘충남도지사 관사촌’이 형성됐다. 이후 2012년까지 충남도지사와 고위급 공무원들의 관사로 사용되었으며, 현재 철도 관사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행정 관사촌이다.

초창기 1930년대에 지어진 관사들과 1970년대에 추가로 지어진 관사들이 함께 있어, 근대와 현대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느낄 수 있다. 현재 충청남도지사공관을 비롯해 9개 관사(1~3, 5~10호 관사)가 남아 있다.

잊혀져 가던 관사촌은 2019년 4월 6일 테미오래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공간과 쉼터로 재탄생했다. 새 이름인 테미오래는 등그렇게 테를 둘러싼 작은 산성을 뜻하며,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고유 지명인 ‘테미’와 골목에 대문을 마주하는 집이 몇 채 있는 마을을 뜻하는 ‘오래’가 합쳐진 순우리말 이름이다. 또한 ‘테미로 오라’, ‘관사촌의 오랜 역사’ 중의적인 뜻도 담고 있다.

각 관사는 현재 테미놀이터, 테미갤러리, 테미메모리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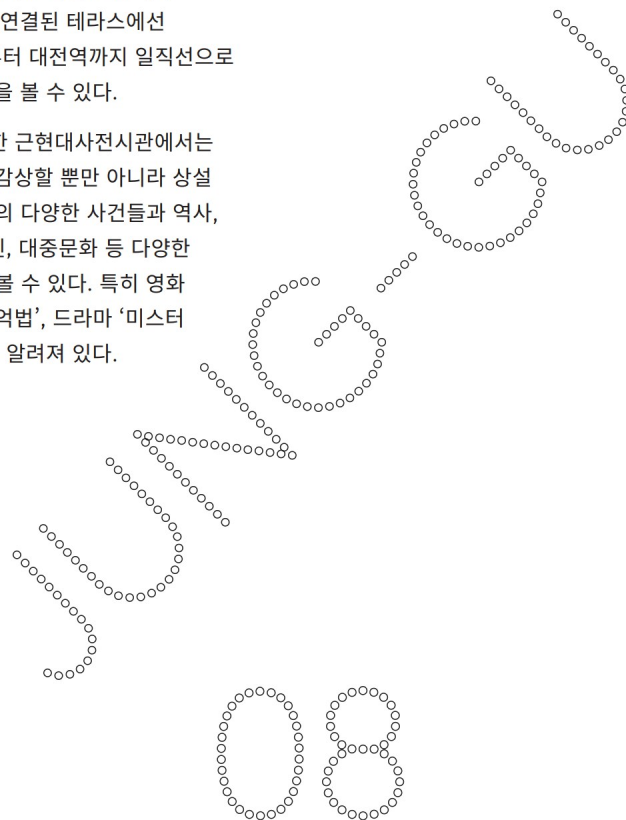
사진제공 노네임프레스 (촬영 윤인숙)

대전근현대사전시관은 대전시립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전시관으로, 1932년에 건축된 옛 충남도청사 본관 1층에 위치하고 있다. 이 건물은 1930년대 초 모더니즘 양식을 반영하며, 당시 건축물 중 보기 드물게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건축사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다. 2012년 12월 충남도청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현재는 대전의 근현대사를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변모하였다.

황갈색 벽돌로 이루어진 대전근현대사전시관은 대칭적인 구조와 큰 창문이 특징이며, 근대 건축의 세련미를 드러낸다. 충남도청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벽체 장식 문양 52개는 현재 정면 1층 창과 2층 창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이외에도 중앙로비 바닥, 1층 현관 홀 천장, 2층 계단실 및 중앙홀 천장 지지대에도 비슷한 장식이 있다. 2층 도지사실과 연결된 테라스에선 대전근현대사전시관부터 대전역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진 중앙로의 전경을 볼 수 있다.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근현대사전시관에서는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뿐만 아니라 상설 전시와 대전 근현대사의 다양한 사건들과 역사, 건축, 도시계획, 디자인, 대중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특별전을 둘러볼 수 있다. 특히 영화 ‘변호인’, ‘살인자의 기억법’,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등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다.

대전의 올곧은 근현대사가 향하는 곳, 대전근현대사전시관



08



09

대전예술가의집은 모든 시민들과 지역 예술인들이 창작물을 발표하고 전시하며, 창작 활동에 함께 동참하는 소통의 문화 공간이다. 이곳은 30년 넘게 대전의 공연예술과 시각예술의 중심이었던 옛 시민문화회관 자리에 새롭게 재건립되어 큰 상징성을 지닌다. 외관은 유연한 곡선으로 설계되어 현대적 감각을 강조하며,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개방감 있는 디자인이 돋보인다.

1~2층에는 140석 규모의 전동식 수납형 객석을 갖춘 블랙박스형 공연장 ‘누리홀’이 자리하고 있다. 이 공연장은 공연 형태에 따라 객석을 계단식이나 마당극 형태로 유동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층에는 8개의 전시실이 위치해 있으며, 각 공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전시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다목적 회의실, 창조의 방, 소통의 방, 리허설 룸 등은 회의나 교육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된다.

오늘도 예술가들은 대전예술가의집에서 꿈을 펼친다.



09

예술가의 꿈이 펼쳐지다, 대전예술가의집

복합문화공간의 무한한 확장, 확장성

대흥동에 위치한 대전복합문화공간 확장성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대의 소품이 모여 있는 공간으로, 한 건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이다. 회색 외관의 3층 건물은 앞면에 넓은 통창을 두어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며, 건물 내에 들어서면서부터 방문객에게 호기심을 자극한다.

1층은 사진과 그림 작업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이미지 사진, 증명사진, 캐리커처 등을 통해 그날의 순간을 기록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 가능하다. 2층과 3층은 레트로와 뉴트로 스타일이 어우러진 대형 카페 공간으로, 각각 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2층은 LP판이 즐비하게 진열된 공간으로, 우드톤의 따뜻한 색감과 함께 클래식 음악을 즐길 수 있는 LP바의 느낌을 준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라디오는 과거의 추억을 자극하며, 음악 마니아들에게 특별한 감성을 선사한다. 3층은 미술품이 가득한 전시 공간으로, 미술관을 방불케 한다. 이곳은 예술품 애호가들이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구형 TV가 벽을 채워 또 다른 시각적 재미를 더해준다. 각 층마다 넓은 공간에 비치된 다양한 소품들은 앉는 자리마다 새로운 공간인 듯한 느낌을 주며, 방문객들에게 매번 새로움을 선사한다.



10

10



11

카페 커닝(Kerning)은 중앙로역 4번 출구에 위치한 3층 카페이다. 외관은 노출 콘크리트와 큰 유리창이 어우러져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주며, 빈티지한 매력과 현대적인 감각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오래된 근대 건축물의 느낌을 살려 벽, 기둥, 천장, 계단을 그대로 보존한 리모델링이 돋보인다. 건물 전체를 사용하여 층고가 높아 개방감을 제공한다.

1층에는 로스팅실이 있으며, 밝은 분위기에 원목 가구가 배치되어 있다. 마감되지 않은 콘크리트 벽면은 오래된 벽과 천장이 우드톤과 잘 어우러져 특별한 매력을 발산한다. 원목 계단을 통해 올라가면 2층과 3층이 나오며, 이곳은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특징이다. 다양한 조각 케이크와 튀르키예 카이막을 맛볼 수 있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11

11

빈티지와 모던, 그 사이의 간격 조절, 커닝

같은 공간, 다른 매력, 뮤제

카페 뮤제를 방문하면 그 입구부터 뮤제에 깊숙하게 빠져드는 느낌이다. 1층은 외벽 없이 오픈되어 있으며, 통유리로만 구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픈된 야외 공간이지만 건물 안쪽으로 들어간 형태이다 보니 뮤제에 자연스럽게 발을 들이게 된다. 1층 내부는 등받이가 없는 아이보리와 그레이 톤의 깔끔한 의자로 꾸며져 있다. 건물 한켠에 있는 돌 오브제는 그레이톤과 잘 어우러져 독특한 포인트가 된다.

2층에선 뮤제의 색다른 매력을 만나볼 수 있다. 조명 아래 넓고 긴 테이블이 일렬로 놓여 있어 흡사 갤러리와 같은 차분하고 깔끔한 분위기가 흐른다. 반면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 쪽에선 편안한 카페의 느낌을 받으며, 한 공간 안에서 두 가지 매력을 느낄 수 있다.



12

12

대전에 미술을 칠하다, 정영복 미술공간

정영복 미술공간(아트스페이스)은 과거 건축사무소와 카페 등으로 사용되다가 문화예술 시민공간으로 재탄생한 공간이다. 문화예술 시민공간으로서 시민들에게는 문화예술 전시 및 체험을, 지역 미술인들에게는 창작 의욕을 돋우고 있다. 외관은 큰 타일 벽화와 벽면의 식물이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매력을 발산한다. 베이지 톤의 색감과 큰 창문이 특징이다.

정영복 화백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1959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다수의 전시를 이어온 작가이다. 그는 대전 둔산여자고에서 36년간 미술교사로 역임하며 길모퉁이나 동네 어귀 등 소박한 풍경을 화폭에 담았다.

정영복 미술공간은 정영복 화백의 개관 기념전을 오는 2025년 2월까지 진행하며, 이후 지역 시민들과 미술인들을 위한 소통 및 전시 공간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13

13

모두를 위한 빵을 만들다, 성심당

대전을 대표하는 제과점(빵집)으로 그 역사는 195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빵을 만든다’는 의미를 담은 간판을 단 작은 찐빵 가게가 그 시작이다. 향토기업으로서 시민들을 위한 맛있는 빵을 만들며 이제는 대전을 넘어 한국 대표 제과점이 됐다.

성심당의 디자인은 안에서 색다르게 완성된다. 가득 진열된 먹음직스러운 빵들은 시선을 사로잡으며, 갓 나온 빵의 냄새는 코를 매료시킨다. 구입한 빵을 실제 집어들 때 느껴지는 빵의 촉감은 설렘을 주며, 한입 베어 무는 순간 입안이 행복해진다. 성심당의 디자인은 모든 감각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다.

이제는 단순 제과점을 넘어 시민과 함께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성심당. 오늘도 이곳에선 많은 이들이 추억을 쌓는다.



14

14



15

이응노 미술관은 화가 이응노(1904~1989)의 삶과 예술을 기리기 위해 2007년에 개관한 공간이다. 건물의 외관은 한옥의 처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백색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빛과 그림자의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 구조는 빛과 공기가 원활히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처마의 틈새는 건축물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려는 건축가의 의도를 드러낸다. 미술관 정문 앞에는 한 폭의 수묵화를 연상케 하는 소나무가 자리하고 있어, 한국 전통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미술관의 주요 테마는 ‘산책’이다. 주변을 거닐고 있으면 이응노 화가의 호인 ‘죽사’와 관련된 대나무가 곳곳에 눈에 띈다. 이는 그가 생전에 대나무를 많이 그렸던 것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지붕에는 이응노의 ‘문자 추상’ 시기를 건축적으로 재해석한 목숨 수 자가 숨어 있어, 그의 작품 세계를 건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설계자인 프랑스 건축가 로랑 보두앵(Laurent Beudoin)의 창의력이 돋보인다.

전시장에는 이응노의 판화 원판 및 판화 작품, 문자 추상 작품, 입체 작품 등 500여 점이 소장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는 전시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특히, 인간 시리즈 중 대표적인 <군상, 옥중 조각>은 이응노의 예술적 깊이를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방문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다.

고향으로 돌아오다, 이응노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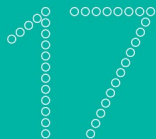
15

100일의 아름다움을 감싸다, 오도르

갑천을 따라 도안동을 지나다 보면 독특한 원형 건물을 만나볼 수 있다. 카페 오도르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건물은 원형의 구조로, 곡선의 벽면이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회색 벽돌이 모던하면서도 견고한 인상을 주며, 파란 유리 난간이 포인트가 되어 시각적 재미를 더한다. 길쭉한 창문이 세련된 디자인을 완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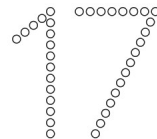
내부는 원형 통로로 되어 있으며, 안쪽 벽면은 통창으로 시원한 개방감을 제공한다. 중앙(통창 바깥)에는 배롱나무가 심어져 있어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포토존으로 사랑받는다. 1층을 지나 계단을 통해 올라가면 2층 루프탑이 있어, 하늘 아래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남선공원 옆 자칫 지나치기 쉬운 컨사이스 (Concise)는 그 이름과 같이 간결한 느낌이다. 이 건물의 외관은 미니멀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이다. 중심에는 밝은 나무색의 문이 위치하고 있으며, 큰 유리창이 있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개방감을 준다. 내부 역시 이름값을 하는 것일까. 넓지 않고 작은 공간에 2인용 테이블 위주로 배치가 이루어져 있다. 이로 인해 자칫 좁다고 느낄 수 있지만, 컨사이스는 미니멀하고 콤팩트한 인테리어와 소품으로 그 공간을 알차게 채우고 있다. 화려하고 시끌벅적한 카페가 아닌 단 둘의 조용한 시간을 찾는다면, 오늘은 컨사이스가 어떨까?

간결함, 그리고 가득 찬 매력, 컨사이스





18

대전을 조금 벗어난 외곽에 흰색 건물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두 개의 건물이 기하학적 형태로 이어진 독특한 카페 투드커피다. 가운데에는 우아한 기둥 구조로 둘러싸인 야외 테라스가 있어 시원하고 개방감 있는 공간을 선사한다. 입구로 가기 전에는 캠핑장처럼 꾸며진 장소가 나온다. 불을 피울 수 있는 캠프파이어존이 마련되어 있고 텐트 같은 천막이 쳐져 있어 특유의 아늑함을 자아낸다.

투드커피라는 이름답게, 트리와 우드를 주로 사용한 잔잔한 색깔이 주를 이루며 자연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내부에는 라탄 소품들과 자연을 담은 포스터가 있는 시그니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마음에 심는 나무 한 그루, 투드커피

SEO

18



19

갈리단길의 각양각색 핫플레이스들 사이에 숨겨진 보석 같은 장소가 있으니, 그 이름이 모티오다. 지하에 위치해 있다 보니 지나치기 쉽지만, 지하에 자리하고 있기에 그 힙한 분위기가 더욱 강조된다. 일반적인 바(Bar)와 다른 모티오만의 매력은 수많은 LP들에서 나온다. 내부의 한쪽 벽면이 LP로 가득 차 있으며, 옛날 포스터, 피아노, 미러볼 등의 소품이 빈티지함을 더해준다. 분위기에 맞는 다양한 LP 음악이 흘러나오며, 매번 다른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는 비밀 아지트가 생긴 느낌일 것이다.

오늘의 LP 플레이 리스트, 모티오

SECRET 19

다시금 번화가의 부흥을 꽃피우다, 갤러리아 타임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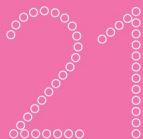
1997년 대전 향토 백화점인 동양백화점이 둔산동에 개점한 동양백화점 타임월드점이 현재 갤러리아 타임월드의 전신이다. 이후 한화유통의 인수 과정을 거쳐 갤러리아 타임월드로 이름을 바꾼 뒤, 대전의 대표 백화점으로 자리 잡으며 대전 번화가의 중심을 지키고 있었다. 이후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이 대전에 진출함에 따라 입지가 줄어들자, 2020년 대전 지역 1위 백화점의 입지를 되찾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건물 외관 전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수많은 미디어 파사드가 갤러리아 타임월드의 외벽을 빼곡히 채우게 됐다. 특히 야간에 빛을 발하는 미디어 파사드의 화려한 모습은 다시금 활기를 가져다주었다. 갤러리아 타임월드의 외벽 디자인은 2021년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세계적인 건축 정보 매체인 'WAN(World Architecture News)'의 'WAN 어워드'에서 각각 본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건축물로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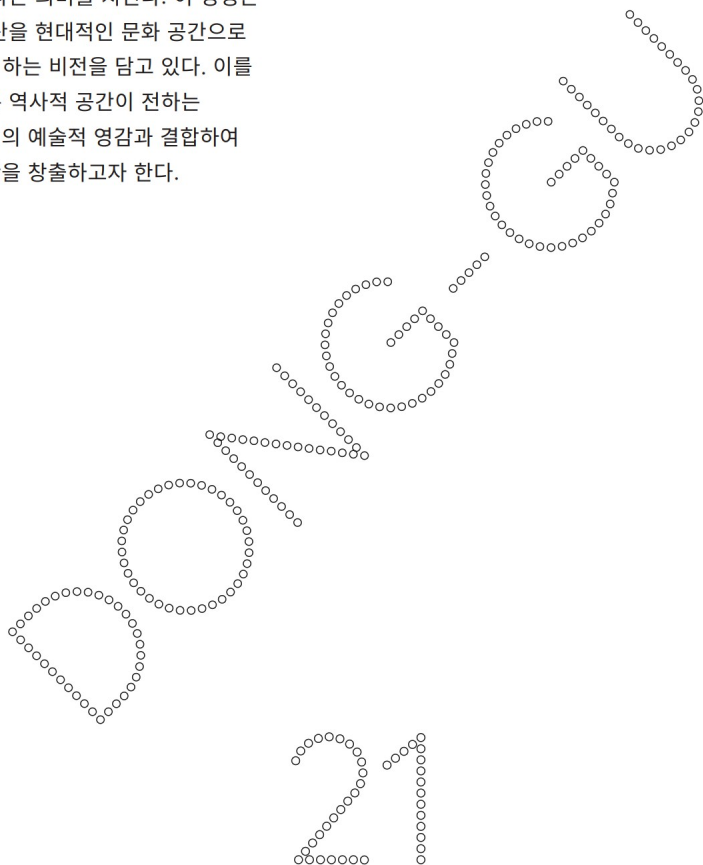
20

2020



헤레디움은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에 있는 고풍스러운 복합문화공간이다. 1922년에 설계된 이 건물은 원래 구 동양척식회사 대전 지점으로 사용되었으며, 일제강점기 시절 대영제국의 동인도회사를 본뜬 경제 수탈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2022년, CNCITY 마을에너지재단은 2년여에 걸친 보수 및 복원 작업을 통해 이 건물을 현대적인 예술과 클래식 음악 공연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리고 근대 건축문화유산으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복원된 이 공간은 이제 대전을 대표하는 문화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헤레디움’이라는 이름은 라틴어로 ‘유산으로 물려받은 토지’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명칭은 과거의 건물 유산을 현대적인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헤레디움은 역사적 공간이 전하는 이야기를 동시대의 예술적 영감과 결합하여 새로운 미래유산을 창출하고자 한다.



재생 건축으로 나누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 헤레디움



22

견우재는 “개 견(犬), 도울 우(右), 집 재(齋)”의 뜻을 가진다. 이름처럼 반려견과 사람이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애견 동반 카페로서 강아지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는 곳이다. 총 네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 A동에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음료 존과 강아지를 위한 디저트 푸드 존이 마련되어 있다. B동에는 반려견과 함께 뛰놀 수 있는 야외 운동장이 있으며, C동에는 펫푸드 레스토랑이 있다. 정원은 D 공간에 위치한다.

A 공간은 흰색 콘크리트와 통창이 결합된 한옥 스타일이다. C동의 레스토랑은 따뜻한 느낌의 콘크리트와 기와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A 공간을 통해 외부로 나오면 B, C, D 공간이 펼쳐진다.

무엇보다 견우재는 공간의 디자인과 설계에 있어 반려견의 시점도 함께 고려되었으며, 이를 통해 반려견과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22

조금은 특별한 존재와 함께, 견우재



23

멋과 운치가 있는 일이나 그렇게 즐기는 행위를 뜻하는 ‘풍류(風流)’가 소재동에 넘실거린다. 곧게 자란 대나무들 사이로 풍류가 흐르는 이곳은 풍류소재다. 이제는 대전의 힘하고 핫한 플레이스들의 동네로 자리 잡은 소재동이 본격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풍류소재(前 풍류가)의 역할이 컸다.

풍류소재는 전통 한옥과 현대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다. 기와 지붕과 돌담으로 꾸며진 입구는 고즈넉한 분위기를 더하며, 이어지는 작은 돌길이 정취를 더한다.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큰 창문은 자연광을 받아들여 밝고 개방적인 느낌을 준다. 내부는 원목 가구와 따뜻한 조명이 어우러져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23

대전의 풍류가 대나무 사이로 흐른다, 풍류소재



24

소제예찬1927은 관사촌 이전의 소제호를 기억하며 만들어진 복합 공간으로, 관사 16호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이 공간은 오프라인 마케팅 플랫폼 프로젝트 렌트와 티 컬렉티브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외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어 옛 느낌을 물씬 풍기며, 한국식 건축법이 더해진 한옥식 적산가옥의 독특함이 돋보인다. 창문은 한국 전통 양식의 격자무늬 창살을 가지고 있으며, 은은한 자연광이 들어와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다다미방도 마련되어 있어 옛 향수를 느낄 수 있다.

찾앞에서 우려나오는 세월, 소제예찬1927

2024



25

2003년 8월 4일 개장한 상소동 산림욕장은 만인산과 식장산 자락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산림욕장으로 가는 길에 버즘나무 가로수 터널이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다. 자연 체험과 휴양을 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이 조성되어 있고, 특히 수많은 돌탑이 조성되어 있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이나 연인 등 각계각층에서 가족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염원을 담은 돌탑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뜻깊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봄부터 가을까지 수많은 야생화를 감상할 수 있으며,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와 산책과 등산,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봄(3~5월)에는 계절 꽃 관찰, 여름(6~8월)에는 물놀이장 운영, 가을(9~11월)에는 단풍숲 체험, 겨울(12~2월)에는 얼음 등산 등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2003년 동구청에서 돌탑 쌓기 캠페인을 진행하여 지금은 이국적인 돌탑들도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한국의 양코르와트’라는 별명을 가진 탑은 대전 대흥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덕상 씨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직접 돌을 골라 쌓아 올린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17개의 ‘희망탑’은 대전 시민의 행복을 기원하며 만든 것이라 의미가 더욱 깊다.

25

대전 시민의 행복을 쌓아 올리다, 상소동 산림욕장



26

조선 시대에는 산세가 수려하여 태조 대왕과 왕자의 태를 모시기도 했던 만인산, 이곳에 만인산 자연휴양림이 위치해 있다. 만인산 자연휴양림은 1997년에 개장하여 활엽수가 울창한 산림을 이루고 있는 도시 근교 휴양림으로, 도시민들의 쾌적한 휴식처 역할을 한다. 만인산 푸른 학습원 인근에 위치한 자연휴양림 내에는 학습농장과 자연관찰로, 만인루각, 만인산 휴게소 등의 시설이 있다. 또 유형문화재 제131호인 이태조태실도 볼 수 있다.

다양한 시설 중에서도 많은 시민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숲속의 집’이다. 복합 휴양 공간으로 지어진 숲속의 집은 A구역과 B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 나무 이름을 따서 이름이 붙어 있다. 특히 시설물의 구조 및 지붕 모양으로 인해 A구역은 ‘네모집’이라 불리고, B구역은 ‘세모집’이라고 불린다.



숲속에 녹아든 세모와 네모, 만인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27

여기소제는 소제동 카페거리의 키워드인 레트로, 구축, 복원에 잘 어울리는 외관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나 볼 수 있었던 하얀 페인트칠이 된 외벽에 간접등과 몇 가지 감각적인 오브제가 여기소제를 트렌디하면서도 레트로한 공간으로 보이게 만든다. 한옥의 기와 모양을 하고 있는 지붕은 여기소제가 소제동의 레트로 키워드에 어울리는 공간임을 알려줌과 동시에, 통유리를 사용하여 층고가 높아 보이고 내부의 천장 조명을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독특한 연출을 자아낸다. 사용된 조명의 색 또한 따뜻한 색상의 조명을 통일감 있게 사용함으로써 소제동이라는 장소에 맞는 따뜻하고 레트로한 분위기를 강조한다.

여기소제는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잠시 휴식을 가지며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쉼터의 역할을 자처하며, 대전 나들이의 따뜻함과 풍요를 더하고 있다.

27

여행자여,
이곳에서
잠시 머물다 가시게,
여기소제



28

대전의 전통적인 랜드마크로 엑스포공원이 꼽힌다면, 최근 새로운 랜드마크로 급부상한 곳이 바로 엑스포타워다. 지상 43층과 지하 5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이는 193m로 현재 대전 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

이 엑스포타워의 주요층을 담당하는 호텔 오노마 대전은 2022년 충청권 최초로 5성급 호텔로 인정받아 주목을 받았다. 200실 규모의 객실은 26~37층에 위치해 있어 한밭수목원과 갑천, 엑스포다리 등을 한눈에 아우르는 전망을 자랑한다.

고대 그리스어로 ‘이름’과 ‘명성’을 의미하는 ‘오노마(Onoma)’라는 뜻처럼 앞으로 대전을 대표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새로이 새기는 랜드마크의 이름, 호텔 오노마 대전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1
호텔 오노마 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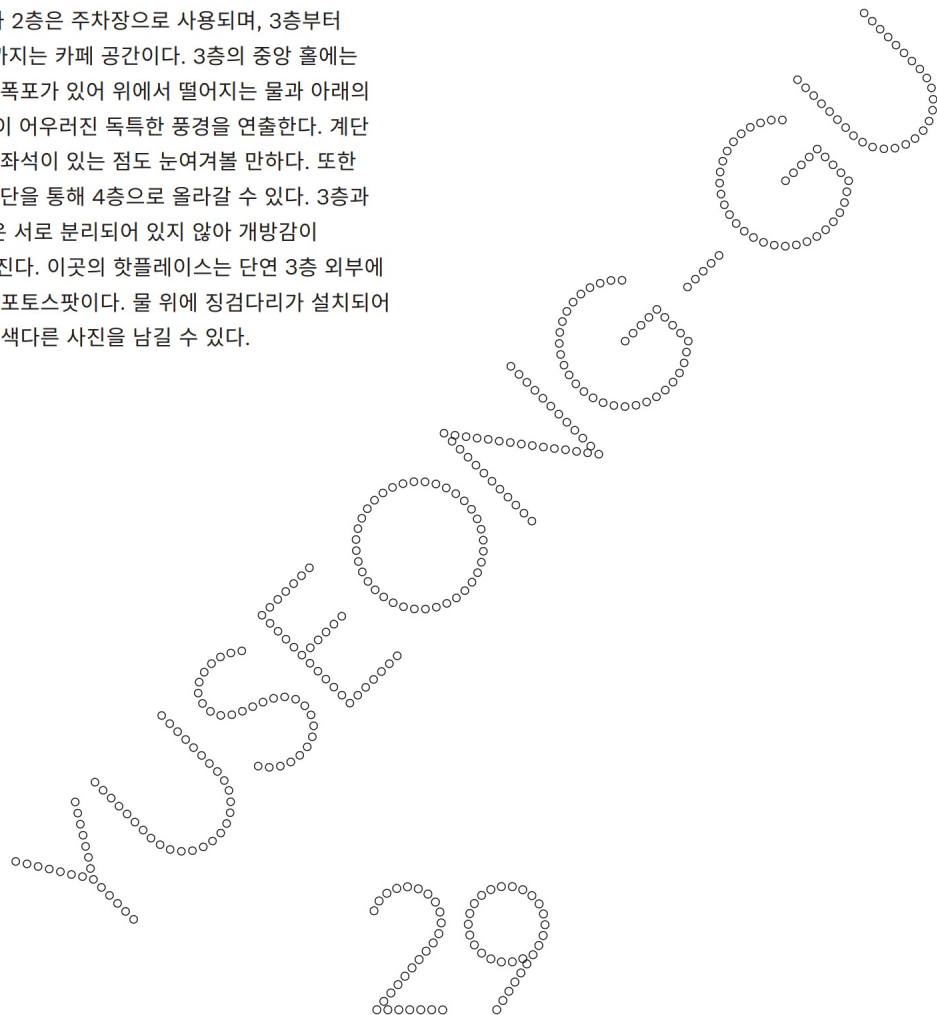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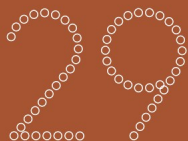
15501628

대전 대형카페의 고유명사, 에이트

최근 대형 카페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어지며 도시 외곽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형 카페들이 생겨나고 있다. 대전의 가장 대표적인 대형 카페는 유성구 그 중심에 있는 에이트다. 현대적이고 깔끔한 공간을 중심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에이트는 넓은 유리창과 매끈한 콘크리트 벽면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세련된 느낌을 주며,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해 내부를 밝고 쾌적하게 유지한다. 외부는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도심 속에서 숲 속에 있는 듯한 편안함을 제공한다.

1층과 2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며, 3층부터 5층까지는 카페 공간이다. 3층의 중앙 홀에는 실내 폭포가 있어 위에서 떨어지는 물과 아래의 식물이 어우러진 독특한 풍경을 연출한다. 계단 위에 좌석이 있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또한 이 계단을 통해 4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 3층과 4층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개방감이 느껴진다. 이곳의 핫플레이스는 단연 3층 외부에 있는 포토스팟이다. 물 위에 징검다리가 설치되어 있어 색다른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아트북의 페이지를 넘기며, 공간타라

공간타라는 건물 전체가 복합문화공간이다.
그에 걸맞게 현대적이고 미니멀한 건물 디자인이
돋보인다. 대형 창문이 여러 층에 걸쳐 있어
개방감을 주며, 자연광을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지하 1층에는 빈티지 가구와 조명, 오브제를 볼 수
있는 갤러리가 있어 독특한 감성을 제공한다.

1층과 2층에는 150년 전통의 덴마크 프리미엄
가구 브랜드 프리츠 한센이 있다. 매장 곳곳을
북유럽풍 가구들로 꾸며 모델하우스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한, 건물 계단마다 아름다운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오르내리며 예술품을 즐길 수 있다.

3층에는 세계 3대 출판사이자 프랑스 컬처 브랜드
애슬린의 아트북과 고급스러운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카페(리브리스 라운지)가 있다. 고급스러운 레드
색상의 벽면이 돋보이는 내부는 아트북 전시 공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각각의 책이 그 자체로 예술
작품으로서 공간에 특별한 감성을 더한다. 예술적인
경험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곳은 커피를 마시며
예술적 영감을 얻기에 완벽한 장소다.

4층에는 리브리스 홈이라는 리빙 편집숍이 있다.
대전에서는 만나볼 수 없었던 다양한 작가
(이혜미, 양유완, 박성극, 최희주, 현대주
등)의 작품과 소품들이 있다. 또한,
작가 작품, 생활용품, 소품, 오브제,
조명 등 다양한 제품을 섬세히
큐레이션하고 있어
그 감성을 더한다.





31

공간태리는 계룡산 자락 아래에 위치한 독특한 디자인의 카페다. U자형 건물이 데칼코마니처럼 대칭을 이루며, 흔히 볼 수 있는 벽돌을 사용해 외부에 곡면을 만들어내어 무게감과 곡선미가 돋보인다. 2022년에는 한국건축가협회상을 수상하며 그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곳은 3층 건물로, 1층 한쪽에는 계단형 좌석이 마련되어 있어 공간적 재미를 더한다. 2, 3층에서는 계룡산의 숲 뷰를 감상할 수 있으며, 자연과 건축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카페가 지어진 대지의 한켠에는 산을 오를 수 있는 공공 산책로가 위치해 있다. 산책로를 방해하지 않고 길을 연결시킨 점이 돋보인다.

곡선과 대칭, 그 어딘가의 편안함, 공간태리

31

도심 속 자리잡은
새벽의 땅,
오브떼르

오브테르는 천성교회 비전센터 2층에 위치한 유럽 감성의 카페이다.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중 하나로 꼽히는 오브테르(Aube Terre)는 ‘새벽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내부 역시 쾌적한 공간을 선보이지만, 본격적으로 자랑할 공간은 외부에 마련된 잔디정원이다. 카페의 내부부터 테라스를 지나 잔디정원으로 이어지는 공간은 아늑함을 준다. 특히 카페와 함께 교회가 위치해 있기에 더욱 이국적인 느낌이다. 잔디정원 한켠에는 작은 놀이터가 마련되어 있어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도 안성맞춤이다.





33

다소 삭막했던 충남대학교 옆 공동 일대는 최근 여러 카페와 풋살 경기장이 자리잡으며 분위기가 변모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곳이 바로 커피인터뷰다. 입구를 지나면 각각의 개성을 가진 3개의 건물을 만나볼 수 있다. 붉은 벽돌과 초록 대문이 인상적인 본관 건물에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유리 통창이 인상적인 별관에선 실내에서도 바깥의 자연을 체감할 수 있다.

커피인터뷰는 공동점을 시작으로 현재 봉명, 반석 등 대전의 각 동네는 물론 아산, 금산, 동학사 등으로 확장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스테이인터뷰’라는 이름의 숙소 시리즈도 추가로 영동, 제주, 양평 등에서 문을 열었다. 특징은 각각의 지역에 맞는 테마에 맞춰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33

새로 써내려가는 공간인터뷰 시리즈, 커피인터뷰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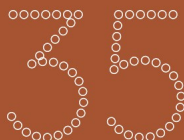
유성구 죽동에선 마치 우주선을 보는 듯한 거대한 돔(Dome) 형태의 건물을 만나볼 수 있다. 국내 최초의 타이어 기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글로벌 연구개발 네트워크의 허브 공간이다. 이 놀라운 건축물은 미래지향적 건축가로 유명한 노먼 포스터(Norman Foster)와 그의 회사인 노먼포스터 앤 파트너스에 의해 설계됐다. 한국에 지어진 그의 첫 번째 기념비적인 작품인 것이다.

테크노돔의 전반적인 디자인은 ‘혁신’을 상징하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최첨단 테크놀로지 기업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돔 형태는 하나의 지붕 아래에 모든 업무를 통합하는 ‘하나의 회사(One Company)’의 이상을 담고 있다. 중앙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동선이 최적화된 여러 실험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테크노돔의 모든 연구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 혁신의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10개의 독립된 사무실이 중앙광장인 ‘아레나(The Arena)’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한 팀으로 협력하며 하나의 회사라는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이곳은 또한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 가치를 반영한 하이테크 연구시설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설계 단계부터 시공까지 환경 친화적인 접근이 적용되었으며, 재활용 건축 자재와 다양한 친환경 자재가 사용되었다. 테크노돔은 태양열, 지열, 빗물 등을 활용하여 일정 수준의 에너지를 자체 충당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건물 앞에 위치한 연못 역시 이러한 친환경 기술의 일환으로, 모인 물을 재활용하여 건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데 사용된다.

345678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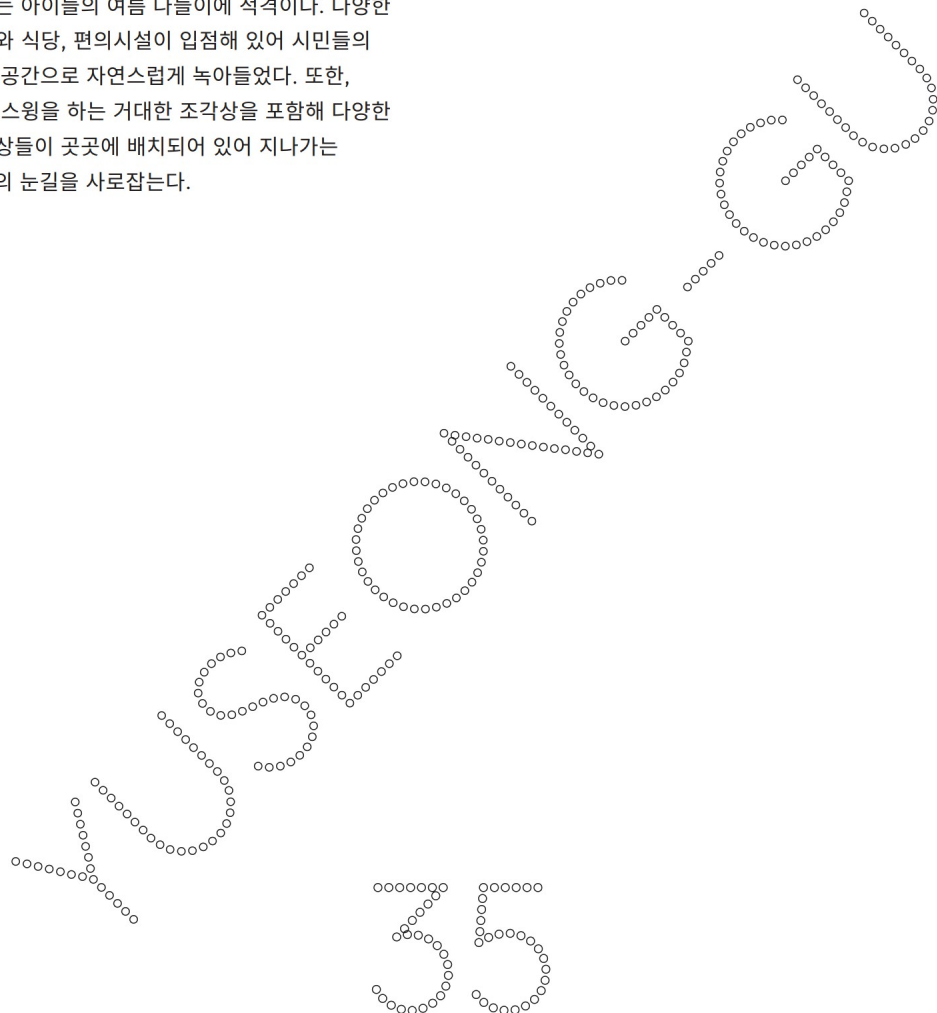
하나의 회사 (One Company)가 만들어가는 혁신, 한국타이어 테크노돔



골프존 조이마루는 골프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첨단 IT 기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토털 골프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대칭의 트윈타워 형태는 골프공이 멀리 그리고 널리 퍼져나가는 모습을 상징한다.

조이마루는 단순히 골프에만 그치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을 지향한다. 마치 골프장에 온 것 같은 잔디밭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절로 그려진다. 특히, 물놀이터와 분수는 아이들의 여름 나들이에 적격이다. 다양한 카페와 식당, 편의시설이 입점해 있어 시민들의 일상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또한, 골프 스윙을 하는 거대한 조각상을 포함해 다양한 조각상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지나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우리 마음에 홀인원 (Hole in One), 골프존 조이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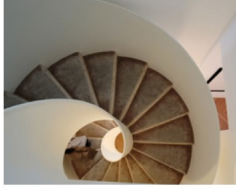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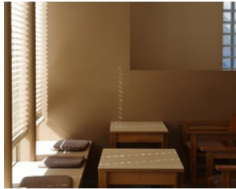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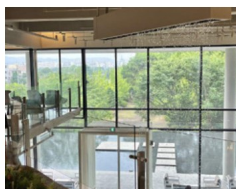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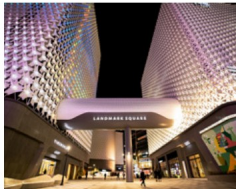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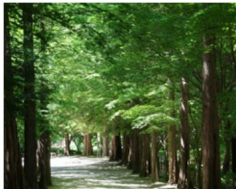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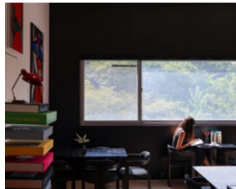


대전

디자인핫스팟

Vol. 1

아카이브

01 동춘당 대덕구 동춘당로 80 동춘당 	06 두두당 대덕구 대청로 234 	11 커닝 중구 중앙로 132 1층 	16 오도르 서구 도안동로 144-34 1층 101호 	21 헤레디움 동구 대전로 735 	26 만인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동구 산내로 106 	31 공간테리 유성구 수통골로 9 
02 을축 대덕구 신탄진동로23번길 81 	07 테미오래 중구 보문로205번길 13 	12 뮤제 중구 대흥로121번길 44 	17 컨사이스 서구 둔산남로180번길 31 	22 견우재 동구 대동천좌안5길 19 	27 여기소제 동구 대동천좌안5길 25 	32 오브페르 유성구 월드컵대로351번길 5 2층 
03 라운지티 대덕구 대덕대로1585번길 16 4, 5층 	08 대전근현대사전시관 중구 중앙로 101 	13 정영복 미술공간 중구 중앙로112번길 29 	18 투드커피 서구 상보안길 105 	23 풍류소제 동구 수향길 31 	28 호텔 오노마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1 	33 커피인터뷰 유성구 한밭대로371번길 25-3 
04 대전육교 대덕구 비래동 	09 대전예술가의집 중구 중앙로32 대전예술가의집 	14 성심당 중구 대충로480번길 15 	19 모티오 서구 갈마역로25번길 17-11 지하1층 	24 소제예찬1927 동구 수향길 19 관사 16호 	29 에이트 유성구 한밭대로 458 	34 한국타이어 테크노돔 유성구 유성대로935번길 50 
05 한남대 선교사촌 대덕구 한남로 70 한남대학교 	10 확장성 중구 중교로 74 	15 이응노미술관 서구 둔산대로 157 	20 갤러리아 타임월드 서구 대덕대로 211 	25 상소동 산림욕장 동구 산내로 714 	30 공간타라 유성구 대덕대로 572 타라토리움 빌딩 	35 골프촌 조이마루 유성구 엑스포로97번길 40 



www.hotspot.or.kr



대전디자인핫스팟
아카이브
Vol. 1



주최·주관

대전광역시
대전디자인진흥원

D
spot



www.hotspot.or.kr



DIDP 대전디자인진흥원
DAEJEON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대전광역시
DAEJEON METROPOLITAN CITY

